

<2014.09.17.~2014.09.18.>

全北日報

2014년 09월 18일 (목)  
지역 12면

## “고창을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성공 모델 1번지로”

환경부·아산 용계마을 등 지역 4곳 협약식  
윤성규 장관, 협력체계 구축 중점 지원 약속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7일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지난 7월말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한 4개지역(고창 아산면 용계마을, 인제 생태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홍1리)과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생태관광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협약했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시부시장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4개지역 주민대표, 생태관광 영리터스클럽,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17일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열린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협약식'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왼쪽서 다섯번째),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등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생

태관광 성공모델 육성마을인 아산면 용계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태관광 추진 노력을 격려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운곡림사르슴지 및 선운산도립공원 꽃무릇군락지를 탐방했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290 X 123 mm

全羅日報

2014년 09월 18일 (목)  
지역 08면

## 고창군 -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협약

윤성규 환경부장관 방문  
인프라 조성 등 지원키로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17일 고창군을 방문해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유관기관이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제도 개선,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홍보 등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고창고인돌박물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는 윤성규 장관을 비롯해 박우정 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부시장, 심덕섭 행정부지사,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이사장, 4개 지역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한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자원의 보존 및 주민 역량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며 “특히 아산 용계마을이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협약식은 앞으로 고창군이 아산 용계마을을 대상으로 내실 있고 알찬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또한 생태관광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임팩트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 · sdi@

/편집=김원형기자 · kims7942@

182 X 79 mm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이 17일 고인돌박물관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부시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4개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 제공

## 고창군 생태관광 명소로 떠오른다

### 환경부, 아산면 용계마을 선정 성공모델 선정 활성화 협약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랍사르습지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청정자연환경을 인정 받는데 이어 아산면 용계마을이 환경부가 역점 추진하는 생태관광 모델지역으로 선정돼 앞으로 전국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부각할 전망이다.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 인근에 위치한 용계마을은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운곡습지 탐방열차를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패턴의 관광상품을 개발,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지정한 마을은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을 비롯해 인제 생태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등 4개마을.

환경부는 이들 모델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1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관련마을 대표와 해당 지자체 단체장 및 관계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부시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4개지역 주민대표 등 12개 기관단체장이 참석,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해 우리나라 생태관광을 한단계 발전시킬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협약을 체결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라며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한 주민 참여형 생태

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태자원의 보전 및 주민 역량개발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앞장서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아산 용계마을을 대상으로 내실있고 알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생태관광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부와 함께 역동적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협약식에 앞서 아산면 용계마을을 방문,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시골방상으로 주민들과 오찬을 나누며 주민들의 생태관광 추진 노력을 격려했고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 생태관광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창 방문... 성공모델 육성 협약식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지난 7월 말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 모델지역으로 선정한 4개 지역(아산 용계마을, 인제 생태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주민대표와 해당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장, 환경부 블로그기자단, 생태관광 영리더스클럽,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협약식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시부시장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4개 지역 주민대표 등 총 12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성공사

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생태관광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체결한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자원의 보전 및 주민 역량개발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 군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모여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174 X 121 mm

고창 용계·강원 생태·전남 명품마을·제주 선흘 1리

##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공동 협약식

고창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지난 17일 고창군 고인돌박물관에서는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한 전국의 4개 지역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해당지역은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과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 전남 신안군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 1리 등 4개 지역이다.

협약은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내 생태관광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부시장 등 4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주민, 환경부 블로그기자단, 생태관광 영리더스 클럽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우정 군수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생태관광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용관 기자

112 X 87 mm

## 고창군 생태관광 활성화 4개 지역 ‘손 잡아’

성공모델지역 협약식 개최  
윤성규 장관 자원개발 지원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7일 고인돌박물관에서 지난 7월말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한 4개 지역(아산 용계마을, 인제 생태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주민대표와 해당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장, 환경부 블로그기자단, 생태관광 영리더스클럽,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부시장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4개지역 주민대표 등 총12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생태관광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협약식 인사를 마치고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 체결한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자원의 보전 및 주민 역량개발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모여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생태관광 활

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아산 용계마을을 대상으로 내실있고 알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생태관광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동적인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마을인 아산면 용계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태관광 추진 노력을 격려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창=김준원기자

252 X 80 mm

## “우리나라 생태관광 발전위해 협력”

### 고창군, 생태관광 활성화 성공모델지역들과 협약식

17일 고창군 고인돌박물관에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말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한 4개 지역(아산 용계마을, 인제 생태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주민대표와 해당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장, 환경부 블로그기자단, 생태관광 영리더스클럽,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생태관광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 체결한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태자원의 보전 및 주민 역량개발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우리 군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모여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향후 아산 용계마을을 대상으로 내실 있고 알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생태관광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동적인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마을인 아산면 용계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태관광 추진 노력을 격려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운곡 탐사르 습지 및 선운산 도립공원 꽃 무릇 군락지 탐방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 윤성규 환경부장관, 고창 방문

## 생태 관광 성공 모델 육성 지역 협력체제 협약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7일 고인돌박물관에서 지난 7월말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한 4개지역(아산 용계마을, 인제 생태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주민대표와 해당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장, 환경부 블로그기자단, 생태관광 영리더스클럽,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비롯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시부시장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4개지역 주민대표 등 총12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여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생태관광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 체결한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자원의 보전 및 주민 역량개발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우정 군수는 “우리군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관계기관 등이 모여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

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고창군은 아산 용계마을을 대상으로 내실있고 알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생태관광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등역동적인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마을인 아산면 용계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생태관광 추진 노력을 격려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윤장관은 운곡람사르습지 및 선운산도립공원 꽃무릇군락지 탐방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종욱 기자

##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협약식' 고창에서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4-09-17 20:54:07]



【고창=뉴시스】김종호 기자 = 17일 전북 고창군 고인돌박물관에서 열린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협약식'에서 윤성규(왼쪽 다섯번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4.09.17. (사진=고창군 제공) photo@newsis.com 2014-09-17

【고창=뉴시스】김종호 기자 =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협약식이 전북 고창에서 열렸다.

1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과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 전남 신안군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홍리 등 4개 지역을 지원·육성키 위한 협약식이 있었다.

협약은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국내 생태관광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부시장 등 4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주민, 환경부 블로그기자단, 생태관광 영리더스클럽 회원 등이 참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과 한국생태관광협회 김성일 회장, 한국관광공사 최종학 본부장 등도 관계 기관장으로서 자리를 함께 했다.

윤성규 장관은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라며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이뤄진 4곳의 성공모델지역에 대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이 모여 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생태관광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6685@newsis.com



전국 > 전북

## 전북 고창서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협약식' 개최

(고창=뉴스1) 박재철 기자 | 2014.09.17 14:00:00 송고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협약식이 17일 전북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7월말 환경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공모델지역으로 선택한 전북 고창군 아산 용계마을을 포함해 강원 인제 생태마을,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등 4개 지역의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시부시장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4개 지역 주민대표 등 총12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성공사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생태관광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생태관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핵심과제로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체결한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자원의 보전 및 주민 역량개발에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과 일행들은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마을인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을 방문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및 선운산도립공원 꽃무릇군락지 등을 탐방하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 고창 운곡습지 찾은 환경부장관

연말뉴스 | 기사입력 2014-09-17 17:01



(고창=연합뉴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7일 전북 고창군 운곡지구 생태습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운곡습지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549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람사르습지이다. 윤 장관은 이날 고창군 등 기초자치단체와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한 뒤 운곡습지를 방문했다.  
2014.9.17 <<환경부>>

doin100@yna.co.kr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고 대박 경품 받아보세요~

▶ <인천아시안게임>개회식 선수선서에 오진혁·남현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7124337>

인쇄하기 취소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 인제·고창·제주·신안 '환경 살리는 생태관광' 어때요?

입력시간 | 2014.09.17 12:00 | 김재은 기자

###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 육성

#### 2017년까지 관광객 3배 증대 예상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환경부가 '환경을 살리는 여행'을 위한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을 육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전라북도 고창군 고인돌공원에서 고창 용계마을, 신안 영산도, 인제 생태마을, 제주 선흘 1리 등 4곳을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로 지정하고 협약식을 갖는다. 이들 4개 마을은 생태관광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생태관광 성공모델 4개 마을 주민대표 이순선 인제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박보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최종학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인제 생태마을은 백담, 냇강, 신월 3개 마을이 함께 생태관광을 추진중이며, 주민주도로 뗏목타기, 도자기체험, 민물새우잡이 체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97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대암산 용늪, 비무장 지대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식이 열린 고창 용계마을은 2011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고인돌 공원 등 세계적인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창군 전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신안군 영산도 명품마을은 코끼리바위, 층암절벽 등 영산 8경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흑산도·홍도 등 주변 관광자원도 우수하다. 제주시 선흘1리는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습지'와 천연기념물인 벵뒤굴, 4·3항쟁 유적 등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마을에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추가배치,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대중매체 홍보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

년까지 각 마을별로 2013년대비 생태관광객을 177~390% 수준, 마을소득을 173~25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윤성규 장관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생태관광협회 등 전문기관이 협력해 생태관광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교육부의 협조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태관광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또 10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상 등 총 상금 2000만 원을 수여하는 생태관광 체험수기·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전북 고창군 용계마을, 생태관광 모델지역 선정

온라인 기사 2014년09월17일 18시40분

[전북=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전북 고창군은 아산면 용계마을이 환경부로 부터 생태관광 모델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 인근에 위치한 용계마을은 지역의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한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환경부로부터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계마을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지정한 마을은 인제 생태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제주 선흘1리 등 4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마을의 성공적인 생태관광 추진을 위해 17일 고창 고인돌박물관에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4개 성공모델지역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태자원의 보전 및 주민 역량개발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성공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이 기사 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92084](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92084)